

‘탈중국화’와 ‘재중국화’

— 필리핀 화인사회의 정치정향 —

박사명*

- I. 서론
- II. ‘탈중국화’와 ‘재중국화’
- III. ‘화상연합’과 소외정향
- IV. ‘청년연합’과 통합정향
- V. 결론

I. 서론

일본의 급속한 부활에 따라 1980년대에는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우려가 동아시아지역을 풍미하는 반면,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1990년대에는 ‘대중화경제권’에 대한 우려가 동아시아지역에 확산된다. 동아시아지역의 패권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일본은 자본에 국한되는 반면, 중국은 자본을 통제하는 인간—동남아의 화인사회—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대중화경제권’의 비교우위가 예상될 수 있다.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일본계 자본의 관료제 조직은 20세기 국가화(nationalization)의 요구에 매우 적합한 반면,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중국계 자본의 연계망(network) 조직은 21세기 세계화

* 강원대 정외과

(globalization)의 요구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Naisbitt 1996).

해외의 중국계 화족(華族 Chinese) 또는 화예(華裔 Chinese descendant)는 그 85% 이상 약 2천만명 정도가 동남아에 거주하며, 그 가운데 아직 중국국적을 고수하는 소수의 화교(華僑 overseas Chinese)를 제외한 90% 이상은 이미 현지국적을 취득한 화인(華人 ethnic Chinese)이다. 중국 지향적 ‘뿌리찾기(落葉歸根)’를 추구하는 20세기 전반의 동남아 화교사회는 2차대전 이후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 고착과 지역적 차원의 국민국가 형성을 계기로 20세기 후반에는 현지 지향적 ‘뿌리뽕기(落地生根)’를 지향하는 화인사회로 전환된다. 이제 냉전구조의 와해와 세계체제의 재편에 따라 동남아 각국 화인사회의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은 21세기의 동아질서에 관하여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아직 국가화의 과제조차 미결인 단계에서 이미 세계화의 도전이 강화되고 있는 동남아의 현실에서 20세기 후반의 화인사회와 같은 ‘탈중국화’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20세기 전반의 화교사회와 같은 ‘재중국화’가 가속될 것인가?

21세기의 새로운 동아질서로서 중국이 주재하는 ‘대중화경제권’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대동아공영권’과 같이 이미 역사적 검증이 완료된 패권적 세력구조는 다시 허용되기 어렵다. 새로운 동아질서는 주권평등의 국민국가라는 20세기 후반의 역사적 성과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다원적 세력구조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동남아 화인사회의 정치정향은 그러한 패권구조와 다원구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 요소의 하나이다. 동남아 각국의 화인사회는 ‘탈중국화’의 경우에는 중국이 동참하는 다원적 지역질서를 위한 매개고리일 수도 있지만, ‘재중국화’의 경우에는 중국이 주재하는 패권적 지역질서를 위한 지지기반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을 주축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괄하는 ‘대중화경제권’에 관한 각종 구상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남아의 화인사회가 다양하게 연루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黃枝連 1992; Harding 1993; Wang 1993).

이 연구는 동남아 화인사회의 ‘탈중국화’와 ‘재중국화’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각국 화인사회의 주변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에 편중된 피상적 시각을 탈피하여 각국 화인사회의 중심적이고 조직적인 동향에 집중된 심층적 시각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탈중국화’와 ‘재중국화’에 관한 접근시각 및 개념구성의 이론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위하여 필리핀 화인사

회의 대조적 정치정향을 대표하는 중추조직으로서 필리핀화상연합총회(華商聯合總會 Federation of Filipino-Chin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이하 ‘화상연합’)와 필리핀화에청년연합회(華裔青年聯合會 Kaisa Para Sa Kaunlaran; 이하 ‘청년연합’)의 정치정향을 분석한다. ‘화상연합’은 필리핀 화인사회의 전통적 정치정향을 대표하는 반면, ‘청년연합’은 필리핀 화인사회의 현대적 정치정향을 대표한다(Carino 1995; 宋平 1995).

II. ‘탈중국화’와 ‘재중국화’

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따른 투자 확대, 연고 회복, 중국어 학습 등 동남아 화인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은 그 ‘탈중국화’가 ‘재중국화’로 반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한다(Wang 1993; Seagrave 1995; Suryadinata 1995; 1997). 사실 ‘중화제국’의 ‘황화(黃禍)’에 관한 기상예보는 역사적으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Alexander 1973; Roy 1996). 그러나 그것은 동남아 화인사회의 중심적이며 조직적인 동향이 아니라 주변적이며 개별적인 현상에 입각한 피상적 추론의 결과일 뿐이다. 더욱이 ‘탈중국화’ 또는 ‘재중국화’ 자체가 아직 분석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통속적 개념이다. 새로운 동아질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화인사회의 중국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귀속을 의미하는 정치적 ‘재중국화’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전제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재중국화’와 정치적 ‘재중국화’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다양한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1. 접근시각

민족문제에 있어서 근원주의(primordialism)적 시각과 상황주의

(situationalism)적 시각은 매우 대조적이다. 전자는 혈연, 지연, 언어, 종교, 문화 등 지극히 생래적이고 불변적인 주관적 조건에 주목하고, 후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분히 선택적이고 가변적인 객관적 조건에 주목한다(Brown 1994, vii-x viii). 근원주의적 접근은 민족적 정체성의 실존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둔감한 정태적 측면을 부각하고, 상황주의적 접근은 민족적 정체성의 도구적 효용을 강조하면서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동태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탈중국화’는 상황주의적 시각의 주장이며, ‘재중국화’는 근원주의적 시각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탈중국화’ 및 ‘재중국화’의 논의에서 근원주의적 시각과 상황주의적 시각은 상호의존적이다.

동남아의 중국 지향적 화교사회는 2차대전 이후 강화되는 세계체제의 냉전적 양극구조, 중국본토의 폐쇄적 계획경제, 현지국가의 민족주의적 화교정책에 따라 현지 지향적 화인사회로 전환되고, 그러한 외향적 정치정향의 변화는 내향적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대의 전환이다(Tan 1988). 따라서 화인사회의 중국본국에 대한 전면적 귀속을 제약하는 정체성의 약화가 드러내는 주관적 조건의 가변성은 상황주의적 접근을 지지한다. 그러나 화인사회의 토착사회에 대한 전면적 동화를 제약하는 정체성의 잔존이 드러내는 주관적 조건의 계속성은 근원주의적 접근을 지지한다. 이제 세계체제의 통합적 다원구조, 중국본토의 개방적 시장경제, 현지국가의 현실주의적 화인정책에 따라 강화되는 화인사회의 내향적 정체성이 그 외향적 정치정향의 ‘재중국화’를 추동한다는 주장에서 두 시각은 다시 새롭게 절충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화인사회의 ‘재중국화’에 대한 우려에서 드러나는 근원주의적 접근과 상황주의적 접근의 절충은 지나치게 편의적이다. 사실 ‘탈중국화’와 ‘재중국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차원은 화인사회의 내향적 정체성이 아니라 화인사회의 외향적 정치정향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의 회복에 따른 내향적 정체성의 강화가 반드시 외향적 정치정향의 전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내향적 정체성에 있어서 화교와 화인은 화족의식을 공유하지만, 외향적 정치정향에 있어서는 전자가 중국 지향적인 반면 후자는 현지 지향적이다. 따라서 외향적 정치정향이 내향적 정체성으로 환원되는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적 결정론과 경제적 결정론의 상호 편의적인 절충을 통

하여 정치적 차원의 자율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Seagrave 1995).

화인사회의 내향적 정체의식은 중국 지향적 정치정향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현지 지향적 정치정향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화족적 정체의식의 완전한 상실과 완전한 복원은 각각 현지 동화와 중국 회귀를 의미하므로 '탈중국화'와 '재중국화'의 문제의는 현실적으로 무관하다. 따라서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탈중국화'는 화교적 정치정향이 화인적 정치정향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며, '재중국화'는 화인적 정치정향이 화교적 정치정향으로 환원되는 현상이다. 화교적 정치정향과 화인적 정치정향의 차별성은 화족적 정체의식의 유사성에 의해서는 해명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내향적 정체의식과 외향적 정치정향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원주의적 접근과 상황주의적 접근의 절충에는 내향적 정체의식 및 외향적 정치정향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이 전제되는 것이다.

2. 정체의식

현실적으로 민족(화족)적 정체성과 국민(토족)적 정체성의 분열이 심각한 동남아 화인사회의 내향적 정체의식은 중국 지향적 정체성과 현지 지향적 정체성으로 양분되는 단층적 정체의식이 아니라, '역사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국민적 정체성' 등이 중첩되는 중층적 정체의식이다(Wang 1988). 중국과의 연계가 유지되는 20세기 전반에는 혈연, 지연, 방언을 기반으로 균열되는 방파(幫派)사회의 '역사적 정체성'과 중국 지향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통합되는 화교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이 중첩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연계관계가 차단되는 20세기 후반에는 토착사회에 대한 갈등과 조화의 양면성 가운데 갈등이 압도적인 화인사회의 '집단적 정체성'과 국민통합의 진전에 따라 조화가 압도적인 국민국가의 '국민적 정체성'이 중첩된다(黃枝連 1992, 292).

그와 같이 다양한 정체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된다(Wang 1993). 그러나 중국에 대한 화인자본의 투자동기가 경제적 이윤추구인지 정치적 민족주의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우며, 결국 중국과의 문화적 동질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정체성은 독자적 의의가 희박하다.¹⁾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정체성도 문화적 차원에 포섭되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문화적 차원의 정체 의식과 정치적 차원의 정치정향이 중요한바, '역사적 정체성'은 문화적 측면이 두드러진 반면 '민족적', '집단적', '국민적' 정체성은 정치적 측면이 두드러진다(Wang 1988, 7). 그와 같이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것은 주로 '역사적 정체성'에 기초한 화족으로서의 정체 의식이며, 동일한 문화적—'역사적'—정체성이 다양한 정치적—'민족적', '집단적', '국민적'—정체성으로 표현되는 현상은 내향적 정체 의식과 외향적 정치정향의 차별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화인사회의 중심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은 기껏해야 '집단적 정체성'을 주축으로 '민족적 정체성'과 '국민적 정체성' 사이를 방황하는 모순적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집단적 정체성'은 '민족적 정체성'이나 '국민적 정체성'의 어느 하나에 근본적으로 친화적인 정태적 현상이 아니라, 토착사회와 중국본토에 대한 화인사회의 양면적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현상이다. 대외적 조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화인사회는 부문, 계층, 세대 등 대내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중국본토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많고 토착사회에 대한 통합의 수준이 낮은 부문, 계층, 세대는 다시 '민족적 정체성'이 강화될 수도 있으나, 다른 부문, 계층, 세대는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세대의 변화는 상황주의적 조건의 변화가 초래한 근원주의적 조건 자체의 변화이므로 새로운 객관적 조건의 영향을 철저하게 제약할 것이다.

3. 정치정향

-
- 1) 동남아 각국에서 화인기업이 경제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평가됨에 따라 화인기업의 중국진출은 각국 국민경제의 대외진출을 위한 가교로서 정책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중국어 학습열도 민족적 차원보다는 경제적 차원의 동기가 압도적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교초등학교의 재학생은 1993년 현재 75% 정도가 말레이계 학생이다(Jesudason 1997, 136-39; Palanca 1995, 82-83; 吳文煥 1990, 101-102). 한편 화인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하여 필리핀 국민의 다수는 그 경제적 동기와 민족적 동기 모두에 주목하고 있다(Laohoo 1995).

대내적으로 화인사회의 존속 자체를 조건짓는 내향적 정체식의과는 대조적으로 외향적 정치정향은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화인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귀속의 정향을 의미한다. 화인사회의 내향적 정체의식은 그 외향적 정치정향을 위한 필요조건인 하나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동남아 화인사회의 정치정향이 현지 지향적—'탈중국화'—인가 아니면 중국 지향적—'재중국화'—인가는 그 정체식의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지국가에 대한 지지와 귀속에 있어서 동남아의 화인사회는 소외, 통합, 동화 등 다양한 정치정향을 드러낸다.²⁾ 소외는 화인사회의 내향적 정체의식이 최대화되면서 외향적으로 토착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정치정향이고, 동화는 화인사회의 내향적 정체의식이 최소화되면서 외향적으로 토착사회에 전면적으로 포섭되는 정치정향이며, 통합은 화인사회의 내향적 정체의식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외향적으로 토착사회와 조화롭게 융화되는 정치정향이다(McBeath 1970; Wang 1988; 黃枝連 1992, 297-326).

현지국가에 대한 화인사회의 다양한 정치정향은 중국본국에 대해서도 전면적 '탈중국화'에서 전면적 '재중국화'까지 다양한 정치정향으로 표현된다. 화교사회와 같이 '민족적 정체성'이 압도하는 회귀적 정치정향은 중국 지향적인 '재중국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화인사회는 소외적 정치정향과 통합적 정치정향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민족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이 병존하면서도 '집단적 정체성'이 우세한 소외적 정치정향은 중국 지향적도 아니고 현지 지향적도 아닌 화인사회 중심적 '탈중국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중국 지향적 '민족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재중국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집단적 정체성'과 '국민적 정체성'이 병존하면서도 '국민적 정체성'이 우세한 통합적 정치정향은 현지 지향적인 '탈중국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동화적 정치정향은 '국민적 정체성'이 압도하는 현지 귀속적 정치정향으로서 전면적 '탈중국화' 경향을 드러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중국화'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정치정향은 경우에 따라 '민족적 정체성'이 강화될 수도 있는 화인사회의 소외적 정치정향뿐인 것이다.

2) 현지국가의 화인정책도 화인사회의 정치정향과 마찬가지로 소외정책, 통합정책, 동화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전자와 후자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상호 조응하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후반 화인사회의 ‘탈중국화’를 향한 원심력이 21세기에 다시 ‘재중국화’를 향한 구심력으로 반전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20세기 전반 화교사회의 정치정향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재중국화’는 한편으로는 토착사회와 화인사회의 상호관계라는 대내적 차원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국가와 중국본국의 상호관계라는 대외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내적 및 대외적 조건의 전격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은 합리적 예측을 초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내적으로 화인사회 내부조직의 약화와 토착사회 계급구조의 변동에 따라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경계가 급속하게 희석되고 있다(Jesudason 1997). 더욱이 화인사회 자체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시각도 다분히 허구적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지 귀속적인 전면적 동화의 경우를 제외하면, 화인사회는 그 정치정향에 있어서 소수의 중국 지향적 집단, 다수의 화인사회 중심적 집단, 점증하고 있는 현지 지향적 집단 등으로 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중국화’는 대체로 소수의 중국 지향적 집단의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Wang 1993).

동남아 각국의 화인사회 가운데 대외적으로 중국 남부 해안지역에 가장 근접적이고, 대내적으로 사회구성에 있어서 가장 동질적인 것은 필리핀 화인사회이다(黃滋生·何思兵 1987, 435-46).³⁾ 그러나 필리핀 화인사회는 그 정치정향에 있어서 전통적 정치정향에서 현대적 정치정향까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전통적 정치정향은 ‘화상연합’의 소외적 정치정향이 대표하는 반면, 현대적 정치정향은 ‘청년연합’의 통합적 정치정향이 대표한다(Carino 1995; 戴一峰 1991; 宋平 1995). 따라서 필리핀 화인사회의 ‘탈중국화’와 ‘재중국화’에 관한 기존의 피상적 논의는 두 조직의 정치정향을 중심으로 다시 검증되어야 한다.⁴⁾ 사실 오랜 중국

3) 필리핀 화인사회는 80% 내지 90%가 복건인(Hokkien)으로서 중국 복건성(福建省) 남부의 4개 현(縣) 출신이며, 전체인구의 약 1.5%인 1백만 내외에 불과한 소규모의 화인사회임에도 불구하고 2,000개 이상의 각종 단체가 활동하는 가장 고도로 조직화된 화인사회이다.

4) ‘탈중국화’의 시각은 “토착사회에 대한 화인사회의 통합과 동화를 향한 결정적 추세”를 강조하는 반면(Tan 1988), ‘재중국화’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중국 지향적인 전통적 조직의 지속적 증가와 중국에서 유입된 새로운 이민의 역할에 주목한다(See 1988; Wickberg 1989).

(대만)⁵⁾ 지향적 조직과 활동으로 인하여 '재중국화'의 혐의를 벗기 어려운 '화상연합'조차 1990년대에 이르면 점차 처음부터 '탈중국화'를 표방한 '청년연합'의 통합적 정치정향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III. '화상연합'과 소외정향

1970년대까지도 필리핀 화인사회는 그 토착사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태국형 '융합사회'와 말레이시아형 '복합사회' 사이의 중간형으로서 전자처럼 완전히 용해되지도 않고 후자처럼 완전히 분해되지도 않는 '혼합사회'로 평가된다(河部利夫 1970). 1949년 중국혁명 이후 중국과 대만 양자에 대하여 모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동남아의 다른 국가와 대조적으로 필리핀은 강력한 반공주의를 공유하는 대만에 대하여 긴밀한 관계를 고수한다(Carino 1995, 206-208). 그러나 대내적으로 1950년대 필리핀의 민족주의는 경제적으로 일련의 배타적 경제정책을 통하여 화인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며, 정치적으로 폐쇄적 귀화정책을 통하여 화인사회의 동화를 억제한다. 따라서 화인사회는 중국(대만) 지향적 정치정향과 화인사회 중심적 정치정향이 중첩하는 지극히 이중적인 소외적 정치정향을 드러낸다(McBeath 1973, 240). 그와 같이 필리핀의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1954년 소매업국민화법은 '화상연합'의 등장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

1. 조직구조

필리핀 화인사회는 식민시대 이래 정치참여의 기회가 차단된 '상업사회'로서

5) 이 연구에서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는 역사적, 문화적으로는 중국을 지향하면서도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대만을 지향하는 필리핀 화인사회의 현실적 곤경을 표현한다. 중국의 개방과 냉전의 종식에 따라 필리핀 화인사회의 정치정향이 분화되면서 보수적 '화상연합'까지도 '중립'을 통하여 그러한 곤경의 해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통일 이전에는 완전한 해소가 불가능하다.

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단체가 이익표출을 위한 중추조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경제부문의 조직도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시대 화교사회의 지도집단 가운데 화교사회 중심적인 ‘전통파’와 중국 국민당정부 지향적인 ‘국민파’ 사이 권력투쟁의 대상이던 마닐라중화상회(中華商會 Chinese Chamber of Commerce)가 독립 직후 필리핀중화총상회(中華總商會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중화상회’)로 복원된다(黃西燕 1967, 80-81). 독립 이후 화인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국민파’의 도전은 1954년 ‘전통파’가 통제하는 ‘중화상회’에 대립하는 ‘화상연합’의 창설로 귀결된다. ‘화상연합’은 대만정부의 치열한 막후공작에 따라 즉각 ‘중화상회’를 추월하여 화교사회의 중추조직으로 부상한다(Agpaló 1962, 131-32).

‘화상연합’은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기존의 다양한 지역별 상회조직과 업종별 동업조합을 전국적 위계구조로 통합하는 경제부문의 최고조직으로서 화인사회 전체의 중추조직으로 전환된다. ‘화상연합’은 사회부문의 화교각종종친회연합회(이하 ‘종친연합’), 문화부문의 화교학교연합회, 정치부문의 국민당총지부 및 화교 반공연맹과 더불어 구성하는 ‘5대조직 피라미트’의 정상에서 전국적 조직망을 관장하는 것이다(See 1988, 320-21; Carino 1995, 112-15). 그 조직에서 근본적으로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화상연합’은 그 활동에서 대내적으로 화인사회의 갈등조정, 복지사업, 교육사업 등 그 영역이 광범한 반면, 대외적으로는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화인사회의 이익표출보다는 대만·필리핀 양국정부에 대한 막후교섭 및 정책협조 등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필리핀의 정치과정에서 ‘화상연합’의 역할은 정책형성을 위한 상향적 투입기능보다는 정책집행을 위한 하향적 산출기능에 편중되는 것이다(宋平 1995, 139-42).

그러한 ‘화상연합’의 조직과 활동을 거의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화인사회의 최상층 자산계급으로서 화인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경제적 재부와 대만·필리핀 양국정부의 후견이 바로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된다(Carino 1995, 106-10). 그러나 경제발전예에 따른 내부구조의 분화와 1975년 이후 현지귀화의 확산에 따라 전문지식, 조직기술, 지도능력 등이 화인사회의 더 중요한 권력자원으로 부상하고, ‘화상연합’은 화인사회 중심적인 전통적 정치정향의 ‘중화상회’와 현지 지향적인 현대적 정치정향의 ‘청년연합’의 양면적 도전에 직면한다. 그 권

력을 밑으로부터의 민주적 지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양국정부의 후견에 의존하는 전통적 정치정향의 '화상연합'은 점차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에 대한 독점적 위상을 상실한다(Carino 1995, 232-33).

그와 같은 경향은 무엇보다도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을 주도하는 세대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화상연합'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에서 출생한 대만 지향적 노년세대이다. 1975년 대만에 대한 외교관계의 단절과 화인에 대한 귀화기회의 개방은 그러한 노년세대의 전통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심각한 외부적 충격이었다. 그러나 세대의 변화에 따라 이미 화인사회 내부에서도 최상층 자산계급의 노년세대가 주도하는 대만 지향적 '화상연합'의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에서 소외된 중간계층 청년세대의 보다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한다. 그에 따라 종친회, 동향회, 동문회 등 화인사회 중심적인 소규모의 전통적 조직이 다시 증가하고,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전통적 경계를 관통하는 청년회의소,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의용소방대, 시민단체 등 현지 지향적인 현대적 조직이 새로 출현하는 것이다(See 1988, 320-24).

2. 정치정향

전면적 귀화조치가 단행된 1975년 이전의 화인사회는 그 경제적 및 정치적 이익표출을 대만정부의 개입과 '화상연합'의 활동에 의존한다. 대만정부의 후견 아래 '화상연합'은 화인사회에 문화적 정체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적 반공노선을 투입함으로써 2차대전 이전의 화교사회와 같은 중국(대만) 지향적 정치정향을 보존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1975년의 대중수교와 귀화조치는 중국(대만) 지향적인 '화상연합'의 정치정향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요구한다. 그에 따라 중국(대만) 지향적인 '화상연합'의 소외적 정치정향은 점차 화인사회 중심적인 '중화사회'가 대표하는 소외적 정치정향에 합류하게 되고, 1986년 민주혁명 이후에는 결국 현지 지향적인 '청년연합'이 대표하는 통합적 정치정향까지 일정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청년연합'의 한 지도자 자신이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제 더욱 젊은 지도부로 구성된 '화상연합'은 대만 중심적이고 화인사회 중심적인

조직에서 점차 더욱 필리핀 지향적인 조직으로 변모되는 것이다”(Tulay 98/10/06).

독립 이후 일관되게 ‘탈중국화’ 경향을 견지하는 ‘중화상회’는 필리핀화교선거공소(華僑善舉公所 Philippine Chinese Charitable Association; 이하 ‘선거공소’)와 연계하여 화인사회의 공동묘지 화교의산(華僑義山)과 종합병원 승인의원(崇仁醫院)을 관장하는 등 철저하게 화인사회 중심적 정치정향을 추구한다(Carino 1995, 170-84). 그러나 ‘화상연합’은 1954년에서 1975년까지 화인사회 중심적인 ‘중화상회’에 비하여 훨씬 외향적이었지만, 정치참여의 제도적 경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화상연합’의 정치참여는 간접적이며 비공식적인 ‘금전외교(金錢外交)’에 국한된다(戴一峰 1991, 39). ‘화상연합’의 조직과 활동은 근본적으로 식민시대의 까삐탄(Kapitan)체제와 비슷하게 현지국가와 화인사회 사이의 하향적 중개역할에 집중되고,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을 위하여 은밀한 마후교섭에 의존하는 소극적 정치행태로 일관하는 것이다(Carino 1995, 221-22).

그러한 ‘화상연합’의 전통적 정치정향은 점차 화인사회의 기성세력과 신진세력 양자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한다. 기성세력은 동화적 정치정향을 추구하는 상층계급으로서, 에컨대 1993년 라모스(Fidel Ramos)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수행한 화인사회 6대 거부 가운데 5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화상연합’을 완전히 이탈하여 토착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張素玉 1995). 신진세력은 통합적 정치정향을 추구하는 중간계층으로서, 1970년대 전반에 활동하는 합일협진회(合一協進會 Pagkakaisa; 이하 ‘협진회’)와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청년연합’이다. 1975년 대 중수교를 전후하여 출현하는 ‘비중우의구락부(菲中友誼俱樂部 Filipino-Chinese Amity Club; 이하 ‘구락부’) 등 각종 친중국적 조직의 도전도 집중한다. 그러나 자율적 사회단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의 계엄통치로 인하여 ‘화상연합’은 여전히 그 압도적 위상을 유지한다.

1986년 민주혁명을 계기로 화인사회의 새로운 정치정향이 표출됨에 따라 마침내 ‘화상연합’의 압도적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1987년 화교의산을 둘러싼 ‘중화상회’ 산하 ‘선거공소’에 대한 대결의 실패와 1993년 납치대책을 둘러싼 ‘청년연합’에 대한 대결의 실패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사실 노년세대를 제외한 자산계급의 중심적 정치정향은 현지 지향적도 아니고 중국(대만) 지향적도 아니며, 기본적으로 화인사회 중심적이다. ‘화상연합’의 압도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화인

사회 중심적인 ‘중화상회’가 ‘화상연합’에 대항하여 1980년대 이후 점차 그 세력을 회복하는 것도 화인사회의 그러한 내부구조 때문이다(Carino 1995, 170-84). 그러나 대만에 대한 화인사회의 정치적 의존은 약화되는 반면 경제적 의존은 오히려 강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화상연합’을 보호한다.

사실 ‘화상연합’은 창립선언에서 “비화(菲華)우호의 강화, 국가정책의 협조, 국민융합의 촉진, 전국화상의 단결, 상업공업의 발전, 합법권익의 추구, 지방발전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제시한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소외적 정치정향보다는 통합적 정치정향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토착사회에 대한 화인청년의 참여를 증진하고 토착사회에 대한 화인사회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華商聯合, 1994: 2-4). ‘화상연합’의 그러한 변화는 이미 1970년대 초반 청년통합위원회의 신설에서도 감지된다(Carino 1995, 158).⁶⁾ 계엄선포 이전에 ‘화상연합’의 대만 지향적 정치정향을 대변하던 화인사회의 최대 일간지 『화교상보(華僑商報)』도 1986년 이후 『상보(商報)』로 복간되면서 ‘화교신문’을 탈피한 ‘화인신문’을 자임하고, 정치참여의 증진과 중국에 대한 우호를 표방하기에 이른다(楊力·葉小敦 1993, 339-40).

1990년대에 이르면 ‘화상연합’의 그러한 변화가 본격화되는바, 각급 선거의 화인후보 20명 가운데 마닐라시장 림(Alfred Lim)을 포함하여 6인이 당선된 1992년 5월의 선거는 그 중요한 계기이다. 그 동안 토착사회의 정치에 대하여 소외적 정치정향으로 일관하던 ‘화상연합’이 화인후보들에게 공식적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관심을 표명한다. 그것은 “필리핀에 화족이 이주하는 천년 동안 최초의 현상”으로 평가된다(黃棟星 1992). 결국 전통적 정치정향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화상연합’은 1994년 중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문함으로써 친대만적 노선을 철회하고 중국과 대만에 대한 중립을 선언한다. 그것은 화인사회의 냉전종식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Carino 1995, 193-98). 1993년 납치범

6) 1970년대에 이르면 화인 대학생의 90% 이상이 국적원칙과 관련하여 혈통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를 지지하는바, 화인사회의 내향적 정체 의식과는 무관하게 그 외향적 정치정향이 광범하게 현지 지향적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중국(대만) 지향적 ‘민족주의의 전성시대’는 사라지고, 중국(대만) 지향적, 화인사회 중심적, 현지 지향적 집단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 집단에 비하여 셋째 집단이 다수로 부상하는 것이다(Angliongto 1975, 58-59).

죄에 대한 소극적 대응 때문에 결정적으로 약화된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한 ‘화상연합’의 시도는 결국 ‘청년연합’에 대한 접근으로 귀결된다.

3. 대표사례

1954년의 소매업국민화 법안은 ‘화상연합’이 창립되는 계기이며, 그 전통적 정치정향이 가장 다각적으로 표현되는 기회이다. 그 이후 1965년까지 ‘화상연합’의 일상적 활동은 거의 주기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일련의 경제적 국민화법안에 대한 투쟁에 집중된다. 그러나 화인자본이 지배하던 각종 농산물 가공 및 유통의 국민화법안에 대한 ‘화상연합’의 투쟁은 거의 모두 실패한다(Glay et al. 1969, 64-77; Carino 1995, 103-106).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화인사회의 중추 조직으로서 ‘화상연합’의 위상은 대만정부의 치밀한 공작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유지된다. ‘화상연합’의 위상은 1965년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자금을 지원한 마르코스의 당선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Carino 1990, 374-76).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4년 소매업국민화법안에 대한 투쟁 이후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을 위한 ‘화상연합’의 전략은 비공식적인 ‘금전외교’에 국한된다(Suryadinata 1993, 298-99).

소매업국민화법안에 대한 투쟁전략으로서 ‘화상연합’은 정부에 대한 탄원, 의회에 대한 로비, 법원에 대한 제소 등 합법적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한다(Carino 1995, 103-106). 의회의원에 대한 개인적 설득보다는 공개적 여론을 통한 압력도 시도한다(Agpalo 1962, 188-94; 207-15). ‘화상연합’의 그러한 전략은 공식적인 선거권, 의원과의 연고관계, 현지어언어의 구사능력 등이 구비되지 않은 객관적 조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Agpalo 1962, 163-64). 그러나 공개적 여론형성은 토착사회로부터 소외된 화인사회의 성격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과가 기대되기 어려운 전략이다. 결국 소매업국민화법안을 둘러싼 정치과정은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두 민족주의가 대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하원에서는 79 대 1,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다(Agpalo 1962, 267).

1954년 이후 객관적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공개적 접근전략은 현실적으로 거의 무용하게 된다. 그에 따라 소매업국민화법안에 대한 투쟁과정에서도 시비가 많았었던 ‘금전외교’가 ‘화상연합’의 거의 유일한 전략으로 귀착된다

(Agpalo 1962, 215-19).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을 위한 조직적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만정부의 개입과 필리핀정부의 후견에 의존하는 '화상연합'은 결국 화인사회 내부의 직접적 도전보다는 세대전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구조의 분화, 정치변동에 따른 정치정향의 분화 등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화된다. 1975년 이전에는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을 위한 중추조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75년 이후에는 귀화를 통한 통합과 동화가 가속되고 세대교체, 경제분화, 정치균열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집단적 이익표출을 위한 집권적 조직구조의 필요성이 급속하게 약화된다.

IV. '청년연합'과 통합정향

1980년대 이후 필리핀 화인사회는 토착사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태국형 '융합사회'와 말레이시아형 '복합사회' 사이의 중간형인 '혼합사회'로부터 태국형 '융합사회'를 향한 이행단계에 진입한다. 1975년 대중수교,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1980년대 냉전종식 등 대외적 요인과 1975년 귀화조치 및 1986년 민주혁명 등 대내적 요인은 그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 내부적 결속의 이완과 외부적 경제의 회색에 따라 화인사회의 전통적 폐쇄성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것이다. 대만 지향적 정치정향을 대체하여 화인사회 중심적 정치정향이 강화되고 현지 지향적 정치정향이 부상한다. 새로운 현지 지향적 정치정향에 대하여 귀화조치는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민주혁명은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며, 세대변화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See 1994, 144-45). 1987년에 등장하는 현지 지향적 정치정향의 '청년연합'은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객관적 조건의 반영이다.

1. 조직구조

1950년대에 구축된 '5대조직의 피라미트' 가운데 국민당총지부와 화교반공연맹의 퇴장을 제외하면 각종 친중국적 조직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1975년 이후에도

여전히 '화상연합'이 정상에 배치된 화인사회의 조직적 위계구조가 유지된다(See 1988, 321). 그러나 1950년대 화인사회의 조직화가 필리핀의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에 대응하여 기존의 다양한 지역별 및 부문별 조직을 전국적 위계구조로 통합하는 최상층 자산계급의 하향적 운동이라면,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조직화는 상승하는 중간계층의 상향적 운동이다(Wickberg 1992, 47). 200개 정도의 다양한 단체회원을 포괄하는 '화상연합'의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관료제 조직과는 대조적으로 200명 정도의 핵심적 개인회원을 보유하는 '청년연합'은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연계망 형성을 추구한다(宋平 1995, 96; 120).

필리핀의 정치과정에서 '화상연합'이 주로 정책집행을 위한 하향적 산출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청년연합'은 주로 정책형성을 위한 상향적 투입기능을 수행한다.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에 있어서 '화상연합'의 활동이 경제부문에 편중되는데 비하여 '청년연합'의 활동은 정치부문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한다. '화상연합'의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구조가 화인사회에서 경제적 기능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압도하던 객관적 상황을 반영한다면, '청년연합'의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조직구조는 화인사회의 구조적 분화에 따라 이익표출의 경로가 다원화되는 새로운 객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Wickberg 1992, 57; 宋平 1995, 100-102). 따라서 '화상연합'의 조직적 역량이 1950년대의 경제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연합'의 조직적 역량은 1990년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투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그와 같이 화인사회의 새로운 이익표출을 주도하는 것은 중간계층의 상승집단이다. 화인사회의 계층구조를 최상층 5%, 중상층 45%, 중하층 30%, 하층 20% 등으로 구분한다면, '화상연합'이나 '증화상회'와 같은 전통적 중추조직의 지도집단은 모두 5%의 최상층에 해당되는 반면 '청년연합'과 같은 현대적 중추조직의 주도집단은 주로 45%의 중상층에서 배출된다(Wickberg 1992, 59-63). 최상층 자산계급이 지도하는 '화상연합'에서 재부가 권력으로 치환되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중간계층이 주도하는 '청년연합'에서는 학술연구, 전문직종, 기업경영 등에 종사하는 집단이 그 전문지식, 조직능력, 관리기술 등을 기반으로 지도역량을 발휘한다. 화인사회는 이제 그 "지도역량이 경제적 재부가 아니라

정치적 효능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Carino 1995, 232).

대만정부의 교육지침에만 의존하던 화교학교가 국민화되는 1970년대 이후 학교운영과 교과과정의 재편은 이미 화인학생의 문화적 현지동화를 우려하던 ‘화상연합’에는 심각한 충격이었다(Tan 1988, 189-91). 화인사회의 지도집단인 노년세대는 여전히 화인사회의 각종 전통적 조직은 물론 교육기관과 언론기관을 관장하고 있다. 중국어교육을 통한 문화적 ‘재중국화’를 지향하는 집단은 그러한 세대이다. 그러나 화인사회의 5~10%에 불과한 노년세대를 제외한 현지출생 청년·장년세대는 이미 화인사회를 이탈하여 법률, 언론, 방송, 예술, 학술, 사회사업 등 토착사회의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See 1990: 367). 노년세대가 토착사회에 폐쇄적인 전통적 조직에만 가담하는 반면, 청년·장년세대는 토착사회에 개방적인 현대적 조직에 참여한다. ‘청년연합’을 주도하는 집단은 바로 그러한 세대인 것이다.

2. 정치정향

1950년대 이후 필리핀의 반공정책에 편승하여 번성하던 화인사회의 친대만계 조직들은 1975년 대중수교에 따라 대부분 공개활동을 중단하거나 활동방향을 변경한다(楊力·葉小敦 1993, 331-32). 그와는 대조적으로 대중관계의 전환에 자극되어 일단의 친중국계 조직이 출현함에 따라 화인사회는 다시 중국정치에 말려드는데, 그러한 친중국계 조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구락부’이다(See 1988, 319-20). 새로운 친중국계 조직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친회와 동향회 등 각종 전통적 조직도 그 재정적 기반과 조직적 역량이 강화되는 현상에 근거하여 화인사회의 ‘재중국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노년세대와 일부 장년세대에 국한된 것으로서 세대변화 및 현지동화의 진전에 따라 ‘탈중국화’가 가속되는 화인사회의 중심적이고 조직적인 현상과는 무관한 주변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에 불과하다(See 1988; Wickberg 1992; Tan 1988, 177-78). 일종의 ‘재중국화’ 현상으로 주목되는 ‘청년연합’의 조직과 활동은 바로 ‘재중국화’ 시각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증일 것이다(Wickberg 1992, 56).

‘청년연합’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정향의 부상을 예고한 것은 1970년 일단의 현지출생 청년세대의 학자, 전문직, 기업인 등으로 조직된 ‘협진회’이다. ‘협진회’의 목적은 토착사회에 대한 소극적 자폐의식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의식을 통하여 화인사회의 합법적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토착사회에 대한 화인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마르코스 정부에 화교학교의 필리핀화를 촉구하고, 당시 개최중이던 개헌회의에 속지주의적 국적원칙을 요구하면서 4개의 지부까지 설치한다. 그러나 ‘협진회’는 화인사회 지도집단의 냉소적 반응, 1972년 계엄선포로 인한 조직활동의 제약, 1975년 귀화조치로 인한 당면과제의 실종 등에 따라 1976년에 해체되고 만다. 당시의 화인사회에서 그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은 대다수 특히 ‘화상연합’의 지도집단에는 ‘저주’의 대상이었다(Carino 1995, 211; 戴一峰 1991, 35).

1975년의 귀화조치와 1986년의 민주혁명을 계기로 화인사회의 정치참여는 종전의 간접적이며 비공식적인 참여에서 직접적이며 공식적인 참여로 전환된다(Suryadinata 1993, 298-300). ‘청년연합’은 1987년 창립선언에서 화인의 “정치참여를 필리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인식하고, 화인의 합법적 권익과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행동을 통하여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青年聯合 1997). 화인사회의 정치참여는 이제 밀실의 ‘금전외교’로부터 광장의 ‘법리외교(法理外交)’로 전환되는 것이다(戴一峰 1991, 39). ‘화인의 이중성’과 ‘화인사회의 복합성’에 주목하는 ‘청년연합’은 중국문화의 충분한 복원과 토착사회에 대한 완전한 통합을 표방함으로써 “재중국화에 관한 문화적 중용”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青年聯合 1990, 7-9; Wickberg 1992, 55).⁷⁾ 중국 지향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현지 지향적인 ‘국민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청년연합’은 한편으로는 화인사회의 개혁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협력을 촉진하여 필리핀의 진정한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7) ‘청년연합’이 화인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입회한 회원 가운데 한자 해독능력이 없는 회원이 60%를 상회하는 현상은 매우 역설적이다(宋平 1995, 99). 그러나 중국 지향적 ‘역사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현지 지향적 ‘국민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청년연합’의 대중적 호소력은 오히려 ‘필리핀인’의 속칭 ‘피노이(Pinoy)’에 비견되는 ‘중국제 필리핀인’의 속칭 ‘치노이(Tsinoy)’와 같이 ‘청년연합’이 창안한 새로운 상징의 사회적 확산에서 확인된다.

위한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연합전선을 제창한다(青年聯合 1997).

‘화상연합’은 『화교상보』 등 한자매체를 통하여 화인사회의 대내적 의사소통에만 주력하며, 토착사회에 대한 대외적 의사소통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청년연합’은 한자세대를 위한 주간 『융합』, 영어·필리핀어 세대를 위한 격주간 Tulay,⁸⁾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화인사회는 물론 토착사회와 국가기구를 대상으로 광범하게 공론형성을 추구한다.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은 특수 이익이 아닌 공공이익으로서 토착사회를 포함한 전체사회의 이익표출로 규정되고, 그에 따라 폐쇄적인 개인적 경로가 아닌 개방적인 제도적 경로를 통하여 사안에 따라 정부기관 및 토착사회 시민단체(NGO)에 대한 연대전략이 구사된다(Carino 1995, 230-32). 예컨대 ‘청년연합’은 1994년 최초의 전국화인대회를 통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하고(Tulay 94/09/05), 1997년에는 라모스의 연임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라 규정하면서 개헌반대 대중집회에 동참한다(Tulay 97/01/06; 97/03/17; 97/10/07).

그와 같이 ‘화상연합’의 소외적 정치정향과 대조되는 ‘청년연합’의 통합적 정치정향에 있어서 화인사회는 필리핀의 다민족적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민족의 하나이며, 중국문화는 필리핀의 다문화적 국민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문화의 하나이다. 따라서 화인사회의 문화적 정체의식은 필리핀 국민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화인사회의 토착사회와 대등한 정치참여는 필리핀 국민국가의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연합’이 추구하는 화인사회의 문화적 ‘재중국화’는 그 정치적 ‘재중국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화인사회 외부의 우려는 문화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청년연합’의 현지 지향적인 통합적 정치정향에 대한 오해에 불과한 것이다.⁹⁾ 그 점에 있어서 ‘청년연합’의 통합적 정치

8) 1995년 8월 월간지에서 격주간으로 변경되는 기관지 Tulay는 ‘청년연합’의 창립 10주년인 1997년 발행부수가 화인사회 기존 신문의 최고 발행부수에 버금가는 14,000에 도달하며, 화인사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변자의 위상을 확보한다(Tulay 97/09/02; 98/06/02).

9) 1996년 7월 22일 및 1999년 2월 17일 마닐라 ‘청년연합’ 본부에서 전회장 및 현고문 Teresita Ang See (洪玉華)와의 면담. ‘청년연합’은 한편으로는 문화적 정체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재중국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See 1995). 그러나 정치적 ‘재중국화’의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재중국화’의 가능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재중국화’에 대한 정

정향이 토착사회에 대한 화인사회의 전면적 현지동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화인사회의 우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청년연합’의 초기단계에 그 통합적 정치정향에 대하여 지극히 부정적이던 ‘화상연합’ 등 전통적 화인조직은 점차 ‘청년연합’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게 된다(Tulay 97/09/02).¹⁰⁾

3. 대표사례

1990년대에 이르러 급증하는 화인사회의 납치범죄는 1998년의 선거과정에서 화인후보에 대하여 토착사회 일각에서 동원된 민족감정과 더불어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여전한 간격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Tulay 98/08/18). 따라서 납치범죄에 대한 ‘청년연합’의 대응과정은 그 통합적 정치정향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하는 사례인 것이다. 필리핀정부의 후견에 의존적인 전통적 정치정향의 ‘화상연합’은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범위가 매우 좁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필리핀정부에 대하여 자율적인 ‘청년연합’의 현대적 정치정향은 화인사회의 지지와 토착사회의 연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범위가 아주 넓다. 따라서 납치범죄에 대해서도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접근에 안주하는 ‘화상연합’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연합’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컨대 ‘화상연합’이 정부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격무를 위로하는 반면, ‘청년연합’은 정부의 범죄대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토착사회와 연대하여 대중집회를 조직하는 것이다(Carino 1995, 222-24).¹¹⁾

치적 ‘재중국화’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10) ‘청년연합’의 본부는 1999년 1월 종전 비논도(Binondo) 차이나타운의 협소한 단층 임대공간에서 마닐라 인트루무로스(Intromuros)의 방대한 3층 독립건물로 이전하였다. 1997년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착수된 이전사업이 ‘화상연합’을 비롯한 화인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 후원에 따라 성공적으로 완수된 것은 그 조직과 활동의 급속한 발전을 상징한다(青年聯合 1997).
- 11) ‘청년연합’의 그와 같은 통합적 정치정향은 인도네시아의 최근 폭동사태에 대한 대처에서도 드러난다. ‘청년연합’은 폭동사태의 와중에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의 일각에서 나타난 토착사회와 회교세력 전체에 대한 대결적 태도와 중국정부나 대만정부에 직접적 개입을 촉구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우려한다. 따라서 ‘청년연합’은 인도네시아의 토착사회와 회교세력도 그 폭력사태를 비난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어떠

납치범죄에 대한 '청년연합'의 그러한 투쟁전략은 실제로 대중매체를 통한 공론형성과 대중집회를 통한 직접행동으로 구체화된다. '청년연합'의 격주간 기관지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납치범죄의 발생현황과 피해상황을 기민하게 보도하고 효과적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한편 화인사회의 다양한 조직을 동원하여 '청년연합'은 1993년 1월 '평화질서회복운동'을 결성하고 한 희생자를 위한 대규모의 장례집회를 주도한다. 1993년 2월에는 토착사회의 각종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범죄대책시민행동'이 결성되고 대중집회가 개최된다. 1995년 12월 '청년연합'은 그 두 연대조직과 공동으로 대중집회를 개최하고 납치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1997년 2월 그 두 연대조직과 공동으로 사회평화를 위한 범종교적 기도집회가 개최된다(青年聯合 1997). 그 가운데 특히 1993년 2월의 대중집회는 113개의 각종 단체와 2만 내지 3만의 군중이 참여함으로써 화인사회의 역사에서 최초의 직접행동으로 기록된다(Carino 1995, 188-89).

1991년 이후 주로 화인사회의 상류계층을 겨냥하는 납치사건이 급증하여 화인사회의 심리적 포위상태가 악화되고, 화인자본의 해외도피에 관한 유언비어가 확산된다. 그러나 '화상연합'은 자본도피 사실만 부인할 뿐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대로 비공개적 경로를 통하여 정부에 경비지원을 약속하고 적극협력을 요청할 뿐, 정부에 대한 공개적 대결과 압력을 회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에 따라 '화상연합'에 대한 불만이 화인사회에 광범하게 확산되지만, '화상연합'은 도리어 '청년연합'의 범죄대책 대중집회 계획을 방해하고 '중화상회'의 화교학교 임시휴교 제안을 비판한다(Carino 1995, 185-88). 특히 1993년 2월의 대중집회는 시민단체, 노동단체, 기업단체, 교육기관, 동문조직, 체육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는 물론 '중화상회', '중친연합', '선거공소' 등 화인사회의 주요한 조직이 거의 모두 참여한다. 그러나 '화상연합'은 토착사회의 반사작용을 우려하여 행사계획을 방해하고 동참을 거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화인사회의 전통적 지지 기반까지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마는 것이다(Carino 1995, 189-93).

화인사회의 이익표출에 있어서 '청년연합'의 새로운 통합적 정치정향이 이룩

한 경우에도 부분적인 폭력사태가 전면적인 민족갈등이나 종교갈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다. 그와 동시에 '청년연합'은 국제연합(UN)과 인도네시아정부에 효과적 대책을 탄원한다(Tulay 98/08/04).

한 성과는 납치범죄에 대한 대책에서 1992년 7월 이후 라모스 정부와 1998년 7월 이후 에스뜨라다(Joseph Estrada) 정부가 드러낸 대조적 능력으로 표현된다. 라모스 정부의 6년 동안 거의 3일 1건 정도로 빈발하던 납치사건이 에스뜨라다 정부의 9개월 동안 거의 1월 1건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이다(Tulay 97/01/06; 97/01/20; 98/01/06; 99/01/05; FEER 99/04/15, 20). 그것은 납치범죄에 관한 화인사회의 효과적인 이익표출에 따라 정부능력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에 있어서 현지 지향적인 '청년연합'의 통합적 정치정향은 화인사회 중심적인 '화상연합'의 소외적 정치정향보다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훨씬 더 효과적인 대응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에 따라 '화상연합'도 그 전통적 정치정향을 과감하게 수정하게 되며, 화인사회의 참여의식과 토착사회의 수용의식의 상호접근에 있어서도 '극적인 변화'가 발생한다(See 1997).

V. 결론

필리핀의 화인문제는 역사적 및 구조적 조건 때문에 그 해결의 일차적 대안이 전면적 동화가 아니라 유기적 통합일 수밖에 없다면, 1975년 이후 화인사회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통합의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족한다. 토착사회에 대한 갈등과 조화의 양면적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측면이 압도하는 '집단적 정체성'으로부터 조화의 측면이 압도하는 '국민적 정체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화인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언어, 결혼, 주거, 교육, 직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된다. 화인사회와 토착사회 사이에 상존하는 내향적 정체성의 일정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화인사회와 토착사회의 외향적 정치정향은 서로 급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 화인사회의 문화적 '재중국화'가 정치적 '재중국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화인사회의 주변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에 편중된 피상적 추론일 뿐, 화인사회의 중심적이고 조직적인 동향에 집중된 심층적 분석의 결과는 아니다. 화인사회의 소외적 정치정향을 대표하는 전통적 중추조직으로서 '화상연합'은 1954년 창립 이후 중국(대만) 지향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1975년

대중수교와 귀화조치 이후에는 화인사회 중심적인 ‘집단적 정체성’을 추구하며, 1986년 민주혁명 이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점차 현지 지향적인 ‘국민적 정체성’을 추구한다. 1987년에 출범하여 화인사회의 새로운 중추조직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년연합’은 문화적으로는 중국 지향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현지 지향적인 ‘국민적 정체성’을 추구한다. 전반적으로 화인사회의 소외적 정치정향이 새로운 통합적 정치정향으로 ‘탈중국화’되어 가는 것이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점증하는 화인사회의 구조적 다원성과 유동성으로 인하여 포괄적 중추조직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화인사회의 중심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화인사회의 정치적 ‘재중국화’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물론 화인사회의 주변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재중국화’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주변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은 21세기 새로운 동아질서와 관련된 동남아 화인사회의 ‘탈중국화’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화인사회의 ‘탈중국화’와 ‘재중국화’ 문제는 화인사회의 주변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심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근원주의적 조건과 상황주의적 조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동태적 시각을 통하여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戴一峰. 1991.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探微.” 中國華僑華人歷史研究所·中國華僑歷史學會. 『華僑華人歷史研究』, 第2期, 總14期.
- 劉之田. 1967. “九十年來菲律賓與華僑.” 『菲律賓華僑善舉公所』. Manila: 菲華僑善舉公所.
- 宋平. 1995. 『承繼與嬗變: 當代菲律賓華人社團比較研究』.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 楊力·葉小敦. 1993. 『東南亞的福建人』.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 吳文煥. 1990. “經濟利益的趨一致.” 郭梁編. 『戰後海外華人變化』. 北京: 華僑出版公司.
- 張素玉. 1995. “菲華資金與菲律賓經濟.” 『東南亞研究』, 第3期, 總95期.
- 青年聯合(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1990. 『融合』. Manila: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 _____. 1997. 『貞菲赤子』. Manila: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 華商聯合(菲律賓華商聯合總會). 1994. 『菲華商聯總會』. Manila: 菲華商聯聯合總會.
- 黃棟星. 1992. “菲國華裔參政熱潮.” 『資本家』, 第11期.
- 黃西燕. 1967. “九十年來的華僑社會.” 『菲律賓華僑善舉公所』. Manila: 菲華僑善舉公所.
- 黃枝連. 1992. 『東南亞華族社會發展論』.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黃滋生·何思兵. 1987. 『菲律賓華僑史』.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 河部利夫. 1970. “東南亞華僑問題研究的觀點.” 『1970年度東南亞華僑研究會中期報告書』. 東京: 亞洲經濟研究所.
- Agpalo, Remigio E. 1962.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Nationalization of the Retail Trade in the Philippines*. Quez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Alexander, Garth. 1973. *The Invisible China: The Overseas Chinese and the Politics of Southeast Asia*. New York: Macmillan.
- Angliongto, Jose L. 1975. *Integration of the Philippine Chinese Ethnic Elements into the National Socio-Political Community*. Rizal: National Defense College of the Philippines.
- Baviera, Aileen S. P. 1995. “Contemporary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 of the Chinese in Metro Manila.” *Chinese Studies Journal*, Vol. 5.

- Brown, David. 1994. *The State and Ethnic Politics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 Carino, Theresa Chong. 1995.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Federation of Filipino-Chin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Continuity and Change (1954-1994)."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Harding, Harry. 1993. "The Concept of 'Greater China'." *China Quarterly*, No. 136.
- Jesudason, James V. 1997. "Chinese Business and Ethnic Equilibrium in Malaysia." *Development and Change*. Vol. 28, No. 1.
- Laohoo, Willy L. 1995. "Filipino Reactions to Philippine Chinese Investments in China." *Chinese Studies Journal*, Vol. 5.
- McBeath, Gerald A. 1970. "Chinese Integration in Contemporary Philippine Society." *Annals of Philippine Chinese Historical Association*, No. 1.
- _____. 1973.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Philippine-Chinese*. Berkeley: Center for South and Southeast Asi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Naisbitt, John. 1996. *Megatrends Asia*. New York: Simon & Schuster.
- Palanca, Ellen H. 1995. "An Analysis of the 1990 Top Corporations in the Philippines." *Chinese Studies Journal*, Vol. 5.
- Roy, Denny. 1996. "The 'China Threat' Issue." *Asian Survey*, Vol. 36, No. 8.
- Seagrave, Sterling. 1995. *Lords of the Rim: The Invisible Empire of the Overseas Chinese*. London: Bantam Press.
- See, Chinben. 1988. "Chinese Organizations and Ethnic Identity in the Philippines." Jennifer Cushman and Wang Gungwu, eds. *Changing Identities of the Southeast Asian Chinese since World War II*.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See, Teresita Ang. 1990. "Integration and Identity in the Post WWII Philippine-Chinese Community." 郭梁 編. 『戰後海外華人變化』.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 _____. 1994. "Political Participation, Integration and Identity of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洪玉華·吳文煥 編. 『華人』. Manila: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 _____. 1997. "The Ethnic Chinese as Filipinos." Leo Suryadinata, ed. *Ethnic Chinese as Southeast Asians*. Singapore: ISEAS.
- Suryadinata, Leo. 1993. "Patterns of Chinese Political Participation in Four ASEAN Stat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5, No. 3.

- _____, ed. 1995. *Southeast Asian Chinese*.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 _____, ed. 1997. *Ethnic Chinese as Southeast Asians*. Singapore: ISEAS.
- Tan, Antonio S. 1988. "The Changing Identity of the Philippine Chinese, 1946-1984." Jennifer Cushman and Wang Gungwu, eds. *Changing Identities of the Southeast Asian Chinese since World War II*.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Wang Gungwu. 1988. "The Study of Chinese Identities in Southeast Asia." Jennifer Cushman and Wang Gungwu, eds. *Changing Identities of the Southeast Asian Chinese since World War II*.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Greater China and the Chinese Overseas." *China Quarterly*, No. 136.
- Wickberg, Edgar. 1992. "Notes on Contemporary Organizations in Manila Chinese Society." Aileen S.P. Baviera and Teresita Ang See, eds. *China Across the Seas*. Manila: Philippine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 FE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Tulay (Tulay: Chinese-Filipino Digest)*.

'Desinification' and 'Resinification':

Political Orientations of the Filipino-Chinese Society

Sa-Myung Park

This study conceptualizes 'desinification' and 'resinification' in a more rigorous manner, and examines the changing political orientations of the ethnic Chinese society in the Philippines. In terms of political orientations, 'desinification' refers to the change from the alienation-orientation of the 'overseas Chinese society' to the integration-orientation of the 'ethnic Chinese society', and 'resinification' vice versa. The extreme orientations of assimilation and repatriation are irrelevant to questions of 'desinification' and 'resinification', for they preclude the possibility of a Chinese community outside China. In the Philippines the alienation-orientation of the Federation of Filipino-Chin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has gradually been approaching the integration-orientation of *Kaisa Para Sa Kaunlaran* which has demonstrated a rapid growth in its political influence over the ethnic Chinese society. The study emphasizes the distinction between cultural 'desinification' and political 'resinification', and concludes that speculations about political 'resinification' through cultural 'resinification' are not based on in-depth analyses of central organizational tendencies but on superficial observations of marginal and incidental phenomena.

<key words> desinification, resinification, alienation, integration